

청양군 친환경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

-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박태신

1. 공급 시작 배경 (조례제정 등)

1)2003년 청양군 친환경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결성

-청양군 농민단체협의회와 전교조가 모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공감

→청양군여성단체협의회, 전교조, 청양시민연대, 청년회의소 등 결합

→발족식, 토론회, 초청강연, 주민서명, 점거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화

*1년 6개월여동안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군의회와 투쟁

2)2003. 11. 8: 주민청원 방식으로 조례제정 청구

3)2005. 7. 15: 조례제정 공포: 무농약, 현물, 유치원~고교까지 전면 급식

4)2006년 학교급식 시작: 무농약 쌀,

5)2007년 잡곡, 채소류로 확대

2. 공급 개요/2012년 기준

학교수 총 34개	학생수 3304명	품목수	매출액 2011년 기준	시설개요	2012년 공급계획
유치원 13	287	총 16	총 1억2180만원	작업장 2	예산 1억9365만원
초등 12	1247	곡류 6	쌀 6498만	저온저장고 3	친환경 16개품목
중등 7	858	채소 7	토종닭 28만	기타 포장기	지역축산물 1등급 (소, 돼지, 닭)
고교 2	912	가공 3	청양유기농5600만	배송: 화성농협 (주2회)	

-쌀은 화성면 내 친환경쌀 작목반 3개 조직에서 생산

-닭은 무항생제 토종닭

-의 전품목 청양유기농영농법인에서 생산, 공급

-화성농협에서 공급

3. 공급방식

1)정산방식: 월 1회 원칙, 일부 품목은 연 3~4회

2)계약방식: 작목반에서 작부체계 정하는 수준. 계약재배 미정립

3)배송방식: 영농법인 소포장 후 농협에 배송, 화성농협에서 각 학교로 배송

4)클레임: 각 학교 영양사가 검수 후 화성농협에 통보, 영농법인에서 당일 직접 교체

5)가격결정방식: 생산자조직(영농법인)과 농협에서 가격 요청, 급식심의위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가격(안) 결정 후 심의위에서 최종 결정

4. 생산주체

- 2005년 조례제정 후 화성친환경채소작목반 설립: 14명
- 2011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: 조합원 확대 추진 중
- 2012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5. 영양사와의 관계

- 영양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: 친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
- 영양사들의 불만 높음: 규격의 문제, 일부 품목 공급 조기 중단, 현물지급의 문제
- 공동식단제 거부

*개선점:

- 1)정기 교육, 타 지역 견학
- 2)생산자-영양사 소통 강화: 직접 만남(친환경 먹을거리의 날 행사 등), 친환경농사 체험 등
- 3)요일별 공동 식단 시범사업: 향후 쌈채소 정해진 날 식단짜기 등

6. 개선방안

1)애로점

- 잉여, 부족생산 등
- 학생수 부족으로 경제성 떨어져
- 컨트롤 타워 부재: 생산, 공급, 교육 등 부재의 원인
-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공무원, 의회, 학교, 학부모 인식 부족
- 생산자들 역시 사명감 미흡,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떨어져
-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위주 사고 팽배

2)개선방안

- 청양군 학교급식·로컬푸드센터 연계 추진: 용역 중
- 급식지원센터: 사람 중심의 시스템 구축, 공공성 중심, 비영리성 등 역할. 컨트롤 타워 설치주문